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지원

고창군이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7일부터 8월1일까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29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이등인육비를 지원하는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자 약 4500세대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자격,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1인)에서 최대 145만원(7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하며 높을수록 차등 지급한다.

한편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된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카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고창군 관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홍보

부안군은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부안군과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35여년 전통의 서울 국제 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하여 관광 여행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 관광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500여개 부스가 세워졌다.

부안군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공모 선정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은 바다 낚시체험 프로그램과 요트체험 프로그램, 바다낚시대회 동호인요트대회 등으로 관광객과 낚시동호인을 불러들이 부안군의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목적이 사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행정

권익현 부안군수, 보안·백산 등 찾아 피해최소화 전 행정력 집중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4일 이른 아침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행정을 진행 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부안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7시 현재 평균 87.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보안면은 최고 131.5mm의 국지성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따라 부안군은 지난 23일 저녁 호우주의보 발효 때부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 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에 주력했다.

부안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관수 76ha(벼 58ha, 콩 18ha)와 주택침수 2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피해상황을 보고받

고 보안면과 백산면 등 상습 침·관수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행정지원 사항을 최대한 지원토록 관련 관·과·소에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행정을 통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결할 것"이라며 "침·관수된 농작물은 서둘러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비의 줄기나 앞에 묻은 흙 양과 오물을 제거해 병해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수상

정읍시, 용자지원 등 영농 정착지원사업 '호평'... 귀농·귀촌 일반지 위상 확인

귀농·귀촌 일반지 정읍시가 2022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그 위상을 재확인했다.

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2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에서 지난 24일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시는 농업창업자금 용자지원과 영농 정착지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귀농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 작가 운영, 마을환경회, 멘토·멘티 컨설팅, 마을 단위 찾아가는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귀농·귀촌학교와 체재형 가족실업농장

을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노력한 결과 시는 지난 4월 2022년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박람회에서도 연달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해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도 '전북 1위', '전국 2위'를 수상하는 등 新 귀농·귀촌 일반지로 자리를 굳혔다.

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참가자들에게 정읍시민의 지역 감성 소개와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민 청년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정읍시의 지원정책 소개와 귀농·귀촌 준비과정, 농촌 정착 성공사례 등을 현실감 있게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주요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은 지역민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물론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귀농·귀촌의 최적지"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읍시와 군산시를 포함해 강원 영월군, 경북 영양군·청도군, 경남 창원군·함양군, 충남 부여군, 전남 여수시·함평군 전국 10개 시·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지난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2022년 장학생 증서 수여식 개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재단 임원 9명과 분야별 장학생 11명 총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군민과 향우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가슴에 새겨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5주) 신청을 받아 2개월여간 서류 및 중점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3일 근농

인재육성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장학생 선발 심의를 마쳤고 그 결과 만점 등록금 등 4개 분야 1,094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은 6월 30일까지 1,028백 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 장학생 선발 주요 심의 결정 사항으로는 해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제외, 같은 학년 중복 지원 제외, 국적취득 외국인에 대한 주소지 기준은 3년으로 외국인 신분일 때 부안군 거주기간을 포함 적용하기로 했다.

제2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급 규정을 개정,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정에 반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계획이다.

1학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모집은 하지 않고 하반기 4학년 이상 학년에 대해 2학기 만점등록금 신청·접수 시기에 함께 신청받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기적의도서관, 문체부 주최 독서아카데미 공모 선정

정읍시 기적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년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독서아카데미'는 역사와 예술, 건축,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연으로 지역주민의 인문 정신 교양과 강의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문학 강연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건축

과 공간에 대한 주제로 양용기 교수(인산대학교)와 이상호 교수(한밭대학교), 윤광준 작가가 찾아온다.

강연자들은 올해 정읍시 한 권의 책(공간의 미래)과 함께 삶에 스며든 건축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인문학 강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먼저 7월 2일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고대~근대 건축물의 역사'는 양용기 교수가 맡는다.

두 번째 과정 '공간을 말하다'는 이상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공간과 인간



의 삶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 과정인 '공간과 삶'은 윤광준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바닥분수 가동

정읍시가 여름철 내장산 문화관광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바닥분수를 개장한다.

바닥분수는 6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두 달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바닥분수 점검과 청소 등을 위해 휴무한다.

시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바닥분수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바닥분수에 1회 이상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주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한다.

또한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통해 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

내장산 문화관광은 음악분수와 바다분수, 야외공연장, 청소년광장 등으로 조성돼 남녀노소 많은 시민이 찾는 나들이 명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